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A형)

홀수형

국어 영역(A형)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동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동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동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날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동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맛본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왜·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목적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맛본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된다. 요컨대 예술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는 한낱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의 지적·실천적 역할이 완전히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33. ㉠~㉤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제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키는 심리적 태도
- ② ㉡: 개별적 취향의 만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구원으로까지 고양되는 경지
- ③ ㉢: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 완전한 만족 대신에 부족함만이 지배하는 상태의 지속

- ④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 ⑤ ㉤: 예술가들이 작품 창조를 위해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 선언

34.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위 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속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다.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은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어.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른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나?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35. 위 글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보기>의 ‘شن베르크의 음악’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شن베르크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만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들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 구현되지만,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진락에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폭로와 저항 등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 ① ‘미적 무관심성’에서 ‘미적 무목적성’으로 이행하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② ‘미적 무관심성’과 ‘미적 무목적성’이라는 조화되기 힘든 두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 ③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지적·실천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 ④ ‘미적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의 ‘지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적 무관심성’을 극한까지 밀고 간 작품으로, ‘지적·실천적 역할’ 같은 음악 외적 요소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철학사전

칸트

[Kant, Immanuel]



출생 - 사망	1724년 ~ 1804년
직업	철학자
분야	비판 철학
국적	독일
관련인물	라이프니츠, 볼프, 흄, 뉴턴, 피히테, 셸링, 헤겔

칸트

목차

- (1) 칸트철학의 배경
- (2) 순수이성비판
- (3) 분석판단과 종합판단 그리고 선천적 종합판단
- (4) 실천이성과 도덕
- (5) 미학(美學)과 합목적성(合目的性)
- (6)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 (7) 칸트의 영향

(1) 칸트철학의 배경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칸트는 청년시절부터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모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초기에는 라이프니츠와 볼프(Wolff)의 철학적 입장을 취할 정도로 합리론에 심취했으며,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합리적 형이상학에 회의를 품고 영국 경험론 특히 '칸트를 독단의 잠에서 깨워 준' 흄(Hume)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시기였다.

그러나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의 영향뿐만 아니라 뉴턴의 자연철학과 물리학에도 대단한 조예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합리론자는 경험과는 관계없는 초감성적 세계의 인식이나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반면에 경험론자는 경험되지 않은 것이나, 초감성적 실체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형이상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경험론과 합리론의 차이는 인식에 관한 관점과 인식의 성립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양대 사상의 종합을 시도한다.

(2) 순수이성비판

칸트는 그의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종래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의 성립 문제와 참된 의식, 그리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한다. 그런 연후에 자신의 입장을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일컫는 바,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철학 이론의 면모를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모두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단순히 '이성'이라고 하지 않고 '순수이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떠한 제약도 개입되지 않은 '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식되는 대상이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이유는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의 '안경'이 여러 가지의 빛깔을 담고 있는 '색안경'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색깔 없는 안경', 즉 인식 주체의 '순수이성'을 비판한다. 칸트는 합리론의 형이상학적 독단론과 경험론의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시도한다. 그의 『순수이성비판』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경험론은 '주체가 대상을 향한다'는 대상 위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합리론은 경험을 도외시하고 '명석판명'한 실체와 인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독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웠다.

그리하여 칸트는 이러한 양자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가 대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주체로 향한다"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 비판'을 계획했다. 이것은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획기적이었던 것만큼 '사과의 혁명'으로 평가된다.

(3) 분석판단과 종합판단 그리고 선천적 종합판단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시도한 후에 '보편타당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는다. 이것이 곧 『순수이성비판』의 주제이다. 여기에 대해 칸트는 먼저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을 구분한다. '분석판단'은 '물체는 연장(延長)을 갖는다'와 같이 주어의 개념에 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판단이며, '종합판단'은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와 같이 주어의 개념에 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판단이다. '분석판단'은 경험을 확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설명판단'이라고도 하며, '종합판단'은 경험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확장판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칸트는 학(Wissenschaft)으로서의 판단은 '선천적 종합판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인식은 보편적이며 필연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편타당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선천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동일시된다. 칸트는 '선천적 종합판단'의 예로서 수학적 판단을 제시한다.

'2+5'는 의심할 바 없이 '7'이라는 점에서 선천적이며, '2+5'라는 개념에는 '7'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지 않고 또한 경험적인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종합판단'이다. 이것은 '123456+654321'과 같은 커다란 수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다고 칸트는 말한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의 형식으로서 '순수직관'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간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선천적인 직관'이며, 시간은 주어진 대상을 마음속에 지속시키는 인식 조건이다. 그러나 감성에는 **물자체**(Ding an Sich)가 아니라 오직 **현상**(Erscheinung)만이 주어진다. 우리는 현상 배후에 있는 물자체 또는 본체계(noumena)를 알 수 없다. 공간과 시간에는 물자체의 세계가 표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감의 형식'(外感의 形式)으로서 공간과 '내감의 형식'(內感의 形式)으로서 시간은 오직 현상의 수용작용(受容作用)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순수직관을 통해 받아들여진 대상은 **오성**에 의해 개념화된다. 그리하여 그것을 오성이 사유하고 판단한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며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인식은 언제나 감성과 오성의 종합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자발적(自發的)으로 활동하는 오성의 주된 작용은 판단과 추론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성의 **범주**이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를 경험적인 것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선형적인 12가지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칸트의 선형적인 12가지 범주

수학적인 것과 관계하는 범주	
분량	성질
단 일 성	실 재 성
다 수 성	부 정 성
총 체 성	제 한 성
물리학적인 것과 관계하는 범주	
관계	양상
실체와 부수성	가능성-불가능성
원인과 결과	현실 존재-비존재
상호성	필연성-우연성

그러나 위의 범주와 감성의 형식을 매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생산적인 구상력이 이러한 작용을 담당한다. 이것이 자연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작용을 하는 바, 이와 같은 것을 칸트는 **도식**(Schemata)이라고 부른다. 칸트에 있어서는 사유 일반, 즉 의식 일반과 이성의 최고 능력으로서의 선형적 **통각**이 현상에 대한 모든 작용을 관장한다. 이 속에서 종합적인 인식이 얻어지면 수학적이며 과학적인 보편타당한 인식의 정초가 확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자연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에도 적용되는가? 칸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이다. 우리의 **오성**은 판단과 추론을 하며, 이 모든 것을 **이성**으로 집약된다. 이성은 '추리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성은 그 본질상 무조건적인 또는 무제한적인 것, 즉 물자체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러한 충동은 결국 형이상학으로서의 접근이지만 칸트에게 있어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성에게는 비감성적 주관(非感性的的主觀) 내지는 초감성적 주관(超感性的的主觀)이 없기 때문이다. 영혼, 세계, 신에 대한 어떠한 명제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세계, 신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순수이성의 **이율배반**(Antinomie)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칸트의 이론철학 또는 이론이성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물자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환상임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야만 실천이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혼불멸**, 자유, 신과 같은 물자체에 대한 요청(要請, postulat)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실천이성과 도덕

칸트의 이론이성은 인식의 한계를 규정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자연의 인과성을 넘어서지 못하며, 감성에 주어질 수 없는 반성적이고 규제적인 활동은 이론이성의 울타리 속에 안주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활동은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다. 우리는 **현상**으로서의 세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율**과 **자유**가 내재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의지를 담당하는 실천이성이 현상의 인식을 담당하는 이론이성보다 우위에 있다. 실천이성에는 천부적(天賦的)으로 '의무'는 **선의지**(善意志)를 요구한다.

또한 선의지는 인간에게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고 하는 **정언 명령**(定言命命, Kategorischen Imperativ)을 부여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의 근거가 자유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의지는 동일한 개념의 양면인 것이다. 그런데 자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칸트는 자유를 자율적 존재자의 특성으로서 일종의 전제(前提)라고 하여 요청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의지 존재(自由意志存在)의 영혼은 현상계를 초월한다.

즉 최상선(最上善)의 이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영혼불멸(靈魂不滅)이 또한 요청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불멸한 이성존재는 최고선(最高善)과 관련하여 행위와 목적의 원인으로서의 신(神)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 영혼불멸, 신은 실천이성을 위한 요청(要請)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진다. 이렇게 하여 이론이성에서 거부되었던 물자체의 개념들이 실천적인 요청으로서 도덕에 등장하는 것이다.

(5) 미학(美學)과 합목적성(合目的性)

칸트는 이론이성에서 논했던 현상계와, 실천이성에서 논했던 예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쾌, 불쾌(快, 不快)의 감성(感性)의 적용을 논한다. 이것이 바로 '미(美)와 생명(生命)의 세계'이다. 자연(自然)의 세계는 필연적인 오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도덕**(道德)의 세계는 도덕률이 지배한다. 그러나 예술의 세계는 합목적성이 다스린다. 칸트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것의 의미하는 바를 논한다. 대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은 미적 판단력이며, 객관적인 판단 능력은 목적론적 판단력이다.

칸트는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보편성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아름다움 역시 만인의 목적에 부응하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바, 이것은 숭고미(崇高美)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대상을 넘어선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움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리하여 칸트에게 있어서의 **미학**은 유기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미학임이 분명해진다. 칸트는 아름다움과 생명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의 궁극적 목적인 자연과 자유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6)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칸트의 모든 이론은 이성에 입각한 이론이다. 종교에 관한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칸트는 종래의 계시종교의 독단을 비판하며 미신적인 요소에 대해 경멸을 표시한다. 그의 종교론은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론이다. 그는 종래의 종교를 타율(他律)에 의한 종교라고 비판을 가하면서 그의 이성적 신앙은 도덕이론에서 그렇듯이 자율(自律)에 근거한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악(根本惡)**을 가지고 있는 바, 근본악은 이성이 **경향성**보다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을 이성보다 앞에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도덕 법칙**보다 **충동의 만족**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면 미신적인 요소로서의 독단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심성이 개혁되기만 하면 언제나 자율적인 이성이 선(善)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종교론은 도덕과 의무의식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이성의 종교론이다.

(7) 칸트의 영향

칸트의 인식론은 중세의 형이상학을 전복시킨 결과를 낳았으며,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을 빈틈없이 완성시켰다. 칸트 당시만 해도 중세 철학이 막을 내리고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이룸하여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성의 완성은 칸트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그의 도덕이론은 중세의 목적론과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론적 이성이 나 감정에 의한 도덕 정당화 계획에 중지부를 찍은 획기적인 이론으로 평가되었다.

칸트의 철학은 독일 철학의 효시가 되어 유럽 사상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동시에 **피히테**, **셸링**, **헤겔**과 같은 철학계의 거성(巨星)들을 낳게 했으며, 그의 사상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신칸트학파**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도 칸트의 도덕이론뿐만 아니라 칸트의 **인식론**은 철학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철학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칸트가 등장한 이후 '이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곳이면 칸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불세출의 철학자 칸트를 '이성의 탐조등'을 비추는 철학사의 등대로 길이 기억할 것이다.

출처



철학사전 | 2009. 책보러가기 >

본 사전은『세계철학사』독자들을 위한 사전으로 이 땅에서 자연과 사회 및 인간 사유의 일반적 발전 법칙을 탐구하여 올바른 세계관을 수립하고 인식과 실천의 과학적 방법을 연구 . 개발하는 데 초석이 되도...

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정언 명령

[Kategorischer Imperativ, categorical imperative, 定言命令]

구분	철학용어
관련문헌	윤리형이상학의 정초
관련철학자	칸트

칸트 철학에서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것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가리킨다. 칸트는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두 가지 종류, 즉 가언적인 것과 정언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가언적 명령이,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다른 사람들이 의욕하는 어떤 다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이라면, 정언적 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명령'이다.

즉 가언 명령이 기술적인 숙련의 규칙이거나 실용적인 영리함의 충고라면, 정언 명령은 그 자체로 윤리성의 법칙이다. 법칙의 보편성과 이 법칙에 맞게 행위해야 한다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포함하고 있는 정언 명령의 순전한 개념이 자신의 정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출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http://philinst.snu.ac.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